



불교충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5년
2016년 7월 1일
음력 5월 27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0호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



병들은 중생을 보살피고 이웃의 극빈한 자를 도와주라는 적극적인 보살행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더구나 동기없는 살인조차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불자들은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명을 적극적인 보살행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교경전을 보면 “바라는 바 있어 기도할 때 방생하면 소원을 성취하게 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은 기도하는 목적을 성취시켜 주며, 살아생전의 모든 죄업을 씻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면 방생을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생의 공덕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 언제 어디서나 불안과 공포에 처한 중생을 만나 보살피고 구제해주는 자비 행위는 불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하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사원과 가정마다 일체의 소원이 두루두루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총기 45년 7월 16일
불교총지중 종령 효 강 합장

오늘,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과 선당부모 조상 영식천도불공을 회향하면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원만히 봉행하게 된 것은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용맹정진과 선업공덕으로 부처님의 가지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정한 해탈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의 해탈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불공을 우선시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대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로서 그동안의 불공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살생을 제일계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불살생계는 살생을 금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구제하고

불기 2560년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7일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川崎)시(市) 일본 진인중 대본사 카와사키다이스(川崎大師) 헤이켄지(平間寺, 평간사)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시작으로 봉행되었다. 법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회정 정사(진각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인규 스님(보문종 총무원장), 상임이사 인선 정사(총지중 총무원장), 우인 정사(총지중 총무부장) 및 안성 정사(총지중 포항 수인사 주교), 원당 정사(총지중 계무부장), 덕광 정사(울산 실보사 주교),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

교), 서강 정사(총지중 유지재단 사무국장), 한일불교문화교류 협회 여성부 이상복 보살(총지중 만다라 합창단 단장) 등 한국 불교 지도자 약 100여 명과 일본 측 대표단 80여 명이 동참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 협회 일본 측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평간사 간수)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는 양국 부인회의 육법공양으로 이어졌다.

자승 스님(한국 측 회장)은 대회사에서 “문명과 기술, 자본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시대와 사회가 정신(精神)의 삶을 등한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종교인의 책무를 다시금 돌아보며 깊게 성찰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주제인 ‘불교신앙의 다양성’

“불교신앙의 다양성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응해 나가자”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본 헤이켄지 (平間寺, 평간사) 대회



▲ 제 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평간사 대본당 앞에서 기념촬영

은 시대를 넘어가는 지혜로운 대안이 되 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정진에는 다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참가자 역시 다양한 의례(儀禮)와 의식(儀式) 그리고 방편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실천하는 전통과 맥(脈)은 놓치지 않아 왔기에 더욱더 조 하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라 할 것입 니다. 오히려 다양성은 불교신앙을 풍요 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대중이 이해하 기 쉽고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현대인들 을 정신의 삶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며 불교문화의 다양함이 현대 인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안이 될 것 이 라 말했다.

일본 측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올 해 학술교류의 주제는 ‘불교신앙의 다양 성’입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인도에 서 성립한 불교는 중국, 한반도, 더 나아가 일본에 전파되어, 각 지역의 문화, 풍 습 등을 포함하며 수용되었습니다. 그 때 문에 우리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 형태 도 다양하고, 신앙의 형태도 또한 그러합 니다.”며 불교의 다양성을 함께 연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저에 게 있어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직에 임명된 후, 첫 일본 대회입니다. 돌 이켜 생각해보면, 쇼와(昭和) 59(1984) 년 10월, 제5차 일한-한일 불교문화교류 대회가 이번 대회 장소인 헤이켄지(平間寺, 평간사)를 회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의 관수는 선대 타카하시 류-텡 (橋隆天) 큰스님으로 일한불교문화교류 협의회의 고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큰스 님께서는 회장 직을 역임하시고, 양국 불 교문화 교류와 친선에 평생 진력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불교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확고한 유대관계를 토 대로 발맞추어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눈부신 미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양국 불교 우호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처님 전 서원했다.

양국의 표백문 낭독과 반야심경 봉독 을 끝으로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마치고, 학술대회와 호마법회가 이어졌다.(기사 및 화보 6, 7면으로 이어짐)

일본 가와사키시(市) 헤이켄지 (平間寺, 평간사)= 김종열 기자

지면안내

- 1면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법어
- 3면 사감원장 안성정사 선출 임시중앙총의회 / 서울 · 경인 신정회 지회 사무실 개소
- 6~7면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가와사키 평간사
- 11면 슈쿠보(템플스테이)의 수행체험에 의한 포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융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이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 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5년 7월 16일(토)

장소 각 교구별로 시행

불교총지중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발대식 및 건강지원법회, 헤민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 개최

“달라이라마 초청은 한국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이자 자존심”



▲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 발대식 모습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공동대표 금강스님, 진옥 스님, 박광서 교수, 이하 방한추진회)는 7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방한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하는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번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 발대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

장 밀운스님, 방한추진회 공동대표 금강스님, 진옥스님, 박광서 교수, 방한추진회 공동집행위원장 월호스님, 사무총장 목종스님, 삼학사원 계세 텐진 남카스님 외 7명의 스님, 탤런트 선우용여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1부에는 담습새들링 삼학사원 계세 텐진 남카스님 외 7명의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님 정수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 법회에서 스님들은 삼귀의 발심, 사무량심 발원, 불보살 16아라한들을 도량에 청해 모심, 만다라 공양, 16아라한의 가피로 정수기원, 존자님 정수기도 등을 독송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은 법어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경전에 있는 말씀만 하신다”며 “앞으로 잘 성사돼서 존자님을 모셔오는 일이 잘되리라 믿는다.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밀운스님은 “부처님 제자는 구업을 지으면 안 된다. 시주하는 것은 복 받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방한추진회 공동대표 금강스님은 대회사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가르침은 평화와 자비, 관용”이라며 “헤인사 팔만대장경을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화적 공존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2부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의 법어, 방한추진회 공동대표 금강스님의 대회사, 목종스님의 내외빈 소개, 공동집행

위원장 월호스님의 경과보고, 달라이라마 방한 UCC공모전 금은동상 수상자 상영, 대불련총동문회를 비롯 11개 신행단체에 대한 후원단체 위촉장 수여, 달라이라마 방한을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과 동국대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3부 ‘헤민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에서 헤민스님(마음치유학교 교장)은 “행복은 연결감을 느낄 때 온다. 공부와 친구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민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서로 아픔을 나누고 행복을 치유하는 콘서트가 됐다.

지난 2014년 ‘달라이라마방한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한 방한추진회는 그동안 12만 명으로부터 달라이라마 방한에 뜻을 같이하는 지지서명을 받았다. 방한추진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활동을 더 활발히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불련총동문회.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경과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대불련총동문회는 대학 전법과 대불련 활성화를 제일의 과제로 두고 모든 역량을 투여하도록 하겠다. 이에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연대하고, 낮은 자세로 미래세대를 위한 캠퍼스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총동문회)는 6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경과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태용(건국대 철학과)교수

의 기조발제 ‘대학생 불자들에게 대한 불교교육의 방향’, 조성택(고려대 철학과)교수의 ‘대학불교운동의 새로운 비전, 청년부터 운동’, 최승태(대학전법지원단장)의 ‘캠퍼스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대한불교진흥원

제14회 대원상 후보 공모

9.19-30일까지 포교대상,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에서는 2016년 제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가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대원상은 포교대상,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하여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하며,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 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텍스트?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 영상 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한편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 개최

10월 30일 오후 4시, 동국대 중강당

도솔회가 주최하고 아카사 기획이 주관하는 제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가 10월 30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강당에서 전국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도솔전국합창대회는 불교합창의 발전을 꾀하고, 찬불가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경연대회이다. 성인으로 구성된 사찰 및 불교단체 합창단(20~60명 이내)이 출전대상이다.

예선대회 참가곡은 ‘천년의 향기’(합현스님 작품집) 25곡 중 1곡을 선택해 DVD나 USB로 동영상상을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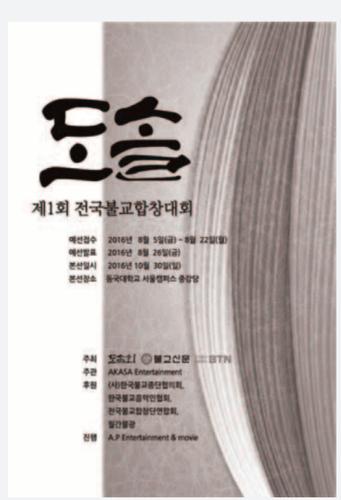
예선접수는 8월 5일부터 22일까지이며 26일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본선진출자를 발표한다.

본선은 장르와 컨셉을 초월한 자유곡이며 예술가곡 형태로 편곡된 모든 장르의 곡이 가능하게 되어 깊은 신심과 환희로운 신행생활에 활력이 되도록했다.

대상을 수상한 1팀에게는 상금 700만원 외에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협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이번 합창제는 도솔회에서 재능있는 아마추어 합창단과 전공자가 파트별 2명까지 단원으로 활동가능한 대회를 꾀해 아마추어 합창단의 역량 향상과 찬불가 합창 발전을 위해 기획된 대회이다.

불법홍포와 사찰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발전된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기대해 본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관성사 황성녀 5/30 10,000	황귀석 6/13 10,000	이순옥 6/23 10,000	혜정사 최영례 6/20 10,000
인선 6/20 20,000	전세형 6/7 30,000	일원어린이집 6/25 10,000	화음사 무명씨 6/2 10,000
기로스승 자비회 6/7 110,000	덕화사 문성호 6/14 50,000	강경화 6/25 10,000	흥국사 지정 6/20 20,000
대관 6/20 10,000	문성열 6/15 50,000	구미자 5/31 10,000	사원명무기명 김갑선 6/20 10,000
원봉 6/21 20,000	이상옥 6/15 20,000	김지영 6/25 10,000	
지선행 6/21 20,000	이성희 5/31 5,000	김용미 5/26 10,000	
밀공정 6/20 10,000	이기상 6/8 10,000	운천사 무명씨 4/14 20,000	
법수원 6/20 10,000	안옥진 6/8 10,000	무명씨 6/14 20,000	
법장화 6/20 10,000	이성수 6/8 10,000	정각사 변순개 6/8 10,000	
법지원 6/20 10,000	박주연 6/8 10,000	조성화 6/25 10,000	
불멸심 6/20 10,000	이수연 6/8 10,000	정남선 6/13 50,000	
사홍화 6/20 10,000	만보사 정덕순 5/26 10,000	지인사 승효제 6/21 10,000	
상지화 6/20 10,000	벽룡사 양정현 6/12 10,000	허성동 5/26 30,000	
수증원 6/20 10,000	양지현 6/12 10,000	허성동 6/15 30,000	
선도원 6/20 10,000	수인사 정순득 6/15 10,000	총지사 박정희 6/12 10,000	
총지화 6/20 10,000	무명씨 5/31 10,000	법등 6/7 30,000	
안주화 6/20 10,000	선립사 심지장 6/21 10,000	김병관 6/17 10,000	
일성혜 6/20 10,000	황귀석 6/13 10,000	손경옥 6/18 1,919	
해정 6/16 10,000	실지사 송우섭 6/8 10,000	백지순 6/1 30,000	
해정 5/31 10,000	조성우 6/3 10,000	신용도 6/12 10,000	
개천사 강순시 6/13 10,000	실보사 이순옥 5/27 10,000	통리원 김평석 6/17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5월26일부터 6월25일까지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지종 사감원장에 안성정사 선출

7월 23일부터 임기 3년간



총지종 대구·경북교구장이자 포항 수인사 주교인 안성 정사가 사감원장에 선출되었다.

총지종 중앙총의회는 6월 13일 열린 임시중앙총의회에서 7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사감원장에 안성 정사를 인준했다. 인기는 7월 23일부터 3년간이다. 사감원장에 취임하는 안성 정사는 "총지종의 발전과 교화를 위해 중령 예

하의 교시를 받들어 공정한 사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선출의 소감을 밝혔다. 총지 32년 승직에 들어선 안성 정사는 영천 단음사 주교, 경주 국광사 주교를 거쳐 현재 포항 수인사 주교로 봉직하고 있다. 또한 총지종 총의회 의원, 사감위원, 사감원 부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총립 동해중학교 행정실장 정년퇴임

1988년 부임 28년간 학교행정을 맡아



학교법인 관음학사 총립 동해중학교 석동훈 행정실장이 6월 29일 정년퇴임을 거행했다.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이사 수현 정사, 감사 도현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및 부산, 경남교구 스승님들과 탁상달 교장, 김재근 교감 등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인선 정사와 탁상달 교장은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한 석동훈 실장의 퇴임을 축하했다.

석동훈 실장은 "지난 28년간 동해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하며 큰 과오 없이 교직을 마무리하

게 했습니다. 총지종과 관음학사의 배려와 여러 교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30여년을 봉직한 학교를 떠나는 마음을 전했다. 석동훈 실장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11월 동해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하여 28년간 봉직하고 6월 30일자로 퇴임했다. 한편 후임으로는 사무국장 법선정사가 취임하였다.

동해중학교= 교감 김계근

울산 실보사 주교 덕광정사

울산미술대전 사군자 입선



울산 실보사 주교 덕광정사가 평소 수행의 방편으로 그려온 사군자가 제20회 울산미술대전에서 입선하였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전국에서 공모하는 울산미술대전은 총 1,000여점이 출품한 전국규모의 미술대회다. 평소 사군자를 즐겨 그려온 덕광정사는 기품 있는 자태

와 그윽한 향이 넘치는 매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수상했다. 수상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총지 37년에 승직에 든 덕광 정사는 건화사 주교를 거쳐 현재 울산 실보사 주교로 봉직 중이다. 제11대 중앙총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총지종 마니합창단

연등회 보존위원회 원력상 수상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 스님)는 6월 29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불기 2560년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총지종 마니합창단이 원

력상을 수상 하는 등 20개 단체가 보현상·정진상·원력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조계종 문화부장 대안 스님은 "시민과 외국인에게 큰 호응을 얻은 연등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

으로 남겼다. 불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등회가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자"라고 다함께 만들어 가는 연등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관성사 이봉재 각자 아들 김인상 군

전국 파라마타 연합회장에 선출



총지종 관성사 이봉재 각자와 김인상 보살의 아들인 이가람 군(서울 대신고 2년)이 파라마타 전국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군의 어머니인 김인상 보살은 "집안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는 분위기 탓인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사찰을 참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학교와 가정에 충실한 아이입니다."며

불교학생 단체인 파라마타 전국회장에 선출된 이군의 성품을 얘기한다. 이군이 선출된 파라마타 전국연합회는 부산 범어사 주지를 지낸 정여 스님이 총재로 1996년 설립된 청소년 단체이다. 전국 12개 지부, 21개 지회와 500여개의 분회로 조직된 회원 3만명의 단체이다. 이군은 전국회장으로 문화제애호, 국제교류, 연구 및 연구 활동에 청소년 회원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임시중앙총의회 개최

신임 총의회 의원 선서 및 사감원장 인준



총지종 중앙총의회(의장 수현 정사)는 6월 13일 피산수련원 중원사 서원당에서 신임 사감원장 안성 정사(수인사 주교)의 인준안 의결과 신임 중앙총의회의원 선서식을 가졌다.

신임 사감원장에 지명된 안성 정사 총의회의 인준으로 가

결 통과 되었다. 이날 신임 중앙총의회 의원으로 인덕심 전수, 승효제 전수, 법수연 전수, 행원심 전수, 지현 전수, 해광 정사가 의원 선서를 했다. 총의회는 집행부의 실명으로 종조탑 건립 부지와 현황 설명을 듣고 사업 안전을 의결 처리하였다.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 사무실 개소불사

6월 00일 역삼동 통리원 1층



총지종 신정회 서울지회(지회장 김은숙 보살)는 6월 00일 통리원 1층 신정회 사무실 개소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 총지사 주교 법등 정사, 인덕심 전수,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을 비롯한 각 사원 신정

회 임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서울·경인 교구장 법경 정사는 "신정회 서울 지회 사무실 개소로 임원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교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하며 개소를 축하했다.

총지사 주교 법등 정사는 "신정회의 발전을 서원하며,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까지 애써 주신 김은숙 지회장님과 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라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경인 신정회 김은숙 지회장은 "신정회 사무실 개소로 교구 임원들과 교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종단의 발전과 교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며 사무실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5



1일시 1 2016년 10월 2일 1장소 1 부산 동해 중학교

불교의 선정 49

생활 중의 정념 7

함께 수행하기 공주(共住)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정념 수행의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수행자들끼리 함께 기거하면서 정념을 닦는 것이다. 혼자서는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 수행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서로가 의지도 되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분발하면서 수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도반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좋은 도반의 조건으로서서는 계를 지키지 않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나 산만하고 무례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안 된다. 논쟁을 좋아하거나 하찮은 일에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도 곤란하다. 술, 담배에 탐착하거나 이성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우 등 세속의 쾌락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같이 수행을 하려면 우선 구도의 정신이 열렬하여야 하며 계를 잘 지키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말을 적절하고 온건하게 하며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 수행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언젠가 아난다가 이런 종류의 좋은 도반을 가지는 것은 도를 절반이나 이론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의 말이 맞지 않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도반을 가지는 것은 도를 절반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도를 다 이론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던 장면이 《아함경》에 나온다. 그만큼 좋은 품성과 자질을 지닌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도반의 격려와 도반의 훌륭한 구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따라 한다면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해이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경우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의 집을 놔두고 굳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고 고집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면 나태해지기가 쉬우므로 여럿이서 공부하는 데에 가면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되고

경쟁력도 불타서 자신을 더욱 책찍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수행에 있어서도 좋은 도반과 함께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전문으로 수행하는 출가자들도 그렇지만 일상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재가자들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정한 기간 함께 수행을 하고 나면 정진력이 몰라보게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함께 수행을 해야 할 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서로에게 진절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매사에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청결과 정돈도 필수적이다. 주위 물건을 어지럽혀 놓거나 잘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면 곤란하다. 수다스럽지 않고 말도 공손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공공 기물을 아껴 쓰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특정한 인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차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함께 수행하는 기간은 한 번에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길게 되면 장소나 특정한 인에 대한 분별심이나 집착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함께 수행을 하면 경험자로부터 적절한 지도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사람과 함께 수행할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자비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잘 참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큰 수행이 되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도 정념을 지니고 화가 일어나는 모양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 화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있게 된 인연에 감사하며 항상 자비심을 바탕에 두고 생활한다면 공주(共住)의 수행은 더욱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정념으로 반야지혜를 획득
실상의 관조로 개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정념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은 반야지혜이며 궁극적으로는 반야지혜를 통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개념에 속박된다. 기존 세대가 형성해 놓은 개념에 따라 자기의 인식구조도 그렇게 닳아가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도 수많은 개념을 만들어가며 거기에 속박된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크다 작다 등등 우리는 우리가 형성해 놓은 개념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면 좋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본다. 사물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개념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하자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 모든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이 좋은가 나쁜가를 가지고 싸운다든지 백인은 어떤지 좀 있어 보이고 흑인은 펜스레 차별한다든지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든 개념, 즉, 선입견에 의하여 그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갈등을 불러오고 스스로도 그런 개념 작용 때문에 사고가 한정되어 괴로움의 길을 걷게 된다.

선입견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요강을 깨끗이 씻고 살아서 소독한 다음 거기에 밥을 담아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요강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밥 먹기가 거부할 것이다. 똥이 방에 있으니 더럽다고 하지만 농사짓는 농부는 밭에 있는 똥을 보고 좋은 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에 길가에 나뭇구리는 노란 은행잎이 갑수성 예민한 시인에게서는 더없이 정겹게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마냥 짜증 나는 일이 된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여 결혼하지만 살아 보면 사랑의 개념이 서로 달라 답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생겼던 것도 다 비슷하고 종교도 같은 것을 믿는 것으로 보지만 그런 우리 생각이고 자기들끼리는 이념이 달라 처절하게 싸운다.

이처럼 모든 사물과 현상은 실체가 공한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개념을 실제시켜서 거기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대응한다. 지금 온 세계가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다 사물과 현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형성된 개념에 속박되어 자초하는 괴로움이다. 정념을 통하여 반야지혜가 생겨 사물의 공성과 연기성을 제대로 꿰뚫고 있으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없다.

반야지혜는 흔히 말하는 지식과도 다르며 지식의 축적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 독경을 하고 불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야가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정념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사물과 현상을 통찰하는 반야지혜가 생긴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반야지혜를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탐진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밝은 마음으로 견성을 하고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내재한 반야지혜가 드러난다. 마치 흙탕 물이 가라앉고 맑아지면 물 밑이 환히 보이는 것처럼 정념 수행을 통하여 우리의 청정 본성이 제 자리를 찾게 되면 사물을 통찰하는 반야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열린 마음과 관용으로 집착을 벗어나
사무량심으로 지금 이 순간의 평정을 누리야

사물과 현상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반야지혜가 있어야 한다. 반야지혜는 정념을 통하여 얻어지지만 정념에 쉽게 들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태도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생활 중에서 계행을 잘 지키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생활태도를 지녀야 한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견해에 집착하여 그것이 도

리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는 계행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진심을 내는 경우도 많다. 자기는 정법을 수호한답시고 하는 것이지만 옆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 자신을 옹아매고 있는 줄을 모른다. 흔히들 하는 말로 “벼룩 서 말은 물고 가지만 중 셋은 테리고 가기 어렵다.”고 조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의 맹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정법도 버려야 하거늘 정법이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뱀목의 비유를 드셨다. 우리가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불법이라는 뱀목을 의지해 건너가지만 다다른 뒤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무리 진리라도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또 다른 괴로움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행자는 늘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으로 지금 이 순간의 평정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즉, 자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며[慈], 불쌍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悲]과 함께 중생들이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喜], 망건과 편견을 내려놓고 관용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며 집착하지 않는[捨]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의 고평함을 누릴 때 진정한 정념이 이루어진다.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넓혀 갈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매 순간 법열을 맛볼 수 있다. 호흡의 관찰과 편안한 마음, 사무량심에 의한 중생에의 무한한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 세계와 우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극락정토가 바로 여기에서 실현된다. 즉신성불(卽身成佛)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계속>



초발심자경문

初發心自警文

화령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제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회자정리 인연법 드러내

부미드 차일드후즈 엔드

유일신 존재에 의문, 우주 성주괴공 연기법 위에 생멸하는 것 이치 보여



▲ 차일드후즈엔드

이 세상에 생명체가 사는 건 지구 하나일까?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의 행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종종 기사화 된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사는 행성들이 분명 존재할 거다. 인류의 궁극적 이상은 외계인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로 생산돼 왔다.

외계인 침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구 정복. 때문에 대부분 외계인을 다룬 영화는 물과 공기가 풍부한 지구를 외계인들의 침략 대상으로 본다. 인디펜던스데이, 우주전쟁, 월드 인베이전 등이 외계인의 침공과 인류의 처절한 방어를 그린 대표작이다. 드라마로는 파충류의 침공을 그린 V가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대다수 외계인을 다룬 작품들은 적대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2015년 12월에 방송된 차일드후즈엔드 3부작 역시 외계인의 침략과 그 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지만 침략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굉장히 종교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유일신을 부정하고, 악마의 존재에 의문점을 던지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불교의 인과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유년기의 끝’이라 번역할 수 있는 차일드후즈엔드는 전쟁 이후 폐허를 보이는 듯 적막하고 스러져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한다. 자신을 천체물리학자 마일로 로드트라스라고 밝힌 한 청년이 자신은 이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라며 날아다니는 동그란 물체에 메시지를 남긴다. 도입부만 본다면 기존 영화의 공식과 다를 바 없다. 외계인의 침략에서 인류를 지키는 데 실패한 건가 하는 의문점을 안기며 시작하는 드라마 차일드후즈엔드.

마일로의 과거, 우리의 현재 2015년으로 돌아가 왜 이런 폐허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마일로는 걸을 수 없는 아이였다. 빈민가에서 마약중독자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신의 꿈이 확실한 소년이다.

마일로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농부



▲ 붕괴되어 가는 지구 위의 마일로

리키다. 미국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리키는 약혼녀 엘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 그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 전 세계 주요도시 상공에 외계인의 우주선이 나타난 것.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 지구상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상공을 날던 모든 비행기가 강제 착륙된다.

그리고 오버로드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 모든 인류가 가장 사랑했던 죽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리키에게는 너무도 사랑했던 전처의 모습으로, 엘리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빈민촌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던 여성에게는 빈민구호에 평생을 바쳤던 수녀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름은 커렐린이라고 소개한 외계인은 지구에 기근, 전쟁, 불평등, 환경파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감독관으로 왔다고 말을 전한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세계 주요도시 위에 우주선을 띄어놓고 감시만 하는 커렐린. 그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도, 각 나라의 정상들도 논의가 격렬하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그는 미국 시골 농부 리키의 집으로 비행정을 보내 리키를 설득하고 그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삼는다. 외계인의 출현으로 각 나라 분쟁지역은 전쟁을 멈췄고, 커렐린은 전쟁, 기아, 폭력, 범죄, 환경파괴 등에 엄중하게 대처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마일로는 외계인에 대한 논문을 써 장학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한다. 막약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긴 엄마 때문에 마일로는 충을 맞지만 우주선으로부터 빛이 내려와 다시 살아난다. 걸을 수 없던 다리마저 나온 채로, 마일로는 쓴 마약판매범은 우주선의 빛을 맞고 바로 사망한다.

외계인 침략(?)하고 인류는 점점 전쟁과 기아, 질병에서 해방되고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이들도 있다. 한 방송사 대표는 여전히 평화로



▲ 지구인과 공개 대면한 커렐린

포장한 외계인의 침략이라 주장하며 즉결심판도 서슴지 않는 커렐린의 행보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소녀 페레타가 방송에 등장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며 선교사인 엄마가 자살했다고 고백한다. 외계인의 존재로 인해 신의 존재를 부정 당했다 믿는 이들의 자살이 이어지지만 먹고 살기 편해진 인류의 대다수는 오히려 행복해한다. 오버로드는 그들에게 신을 대신하는 존재다. 교회는 위축되고 인류는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균등하게 분배된 부 아래에서 먹고 쓰는 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리키가 다시 납치된다. 외계인의 말에 저항해서 그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자유연맹에 의해서다. 자유연맹을 이끄는 방송사 대표는 외계인에 저항하자고 리키를 회유하지만 거절 당하자 리키를 사살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시간을 멈춘 듯 리키를 빠져나오게 한 커렐린은 리키를 대변인에서 해고(?)하고 리키는 엘리와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자유연맹 역시 테러범처럼 괴멸된다.

15년 후, 전 세계가 세계연맹이라는 단일 국가로 재탄생하고 평화로워진 어느 날, 오버로드 커렐린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서양에서 그려온 악마의 모습으로, 왜 악마의 모습일까? 드라마는 이렇게 답한다. 이미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그들을 본 인류의 기억이라고. 그 사이 커렐린과 밀접한 연관을 맺은 곳이 루퍼트 보이스 박사의 보이스센터다.



▲ 지구인과 공개 대면할 접촉 중



▲ 진공포장 돼 이동하는 지구 생물종

세계와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다. 성장한 마일로는 이곳의 연구자이지만 커렐린이 온 우주가 어디인지 찾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외면 당한다. 우주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는 오버로드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 점점 지구인들은 능동성을 잃고 현재의 행복에 취해간다. 넝쿨에 매달려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도 입에 떨어지는 꿀에 심취한 인간처럼.

보이스센터는 임신부들이 있는 직원 가족을 초청해 파티를 열고 이 자리에 커렐린이 나타난다. 제이크와 임신한 에이미 부부 역시 파티에 초청을 받았고, 에이미는 커렐린에 의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야기의 축은 제이크와 에이미가 임신한 아이 제니퍼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인류의 진화가 시작된다. 제니퍼가 태어나고, 달라진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열력과 텔레파시 등 초능력을 보이게 시작한다. 구인류인 부모세대와는 다른 모습. 커렐린은 이제 더 이상 지구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다. 얼마 후 신인류의 구심점 제니퍼는 이제 때가 되었다면서 하늘로 등실 떠오른다. 제니퍼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늘로 사라진다. 오열하는 부모만 남겨둔 채, 하늘로 사라진 아이들이 모인 곳은 세도나처럼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공간. 그 곳에서 아이들은 제니퍼의 뜻에 따라 하나의 정신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외계인이 지구에 온 이유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궁극했던 마일로는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커렐린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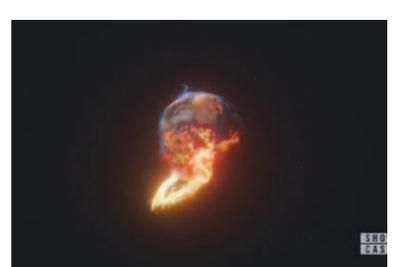
성으로 보내는 지구 생물 종 수집본에 섞여 우주선에 탑승한다. 진공포장 된 채로, 노아의 방주처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을 수집한 외계인. 그들 역시 상위자의 명령에 의해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우주선에서 깨어나 그곳에서 커렐린의 이야기를 들은 마일로. 이미 80년이 흘렀지만 지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드라마의 첫 장면으로 돌아간다. 마일로는 지구를 떠난지 80년. 아이들이 사라지고 남은 세대의 수명이 다한 지구는 생명의 흔적 없이 황폐해져 있다. 아이들은 바위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 염원한다. 마일로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자 아이들이 만든 에너지가 폭발을 일으키며 지구는 소멸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진다. 커렐린이 우주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드라마는 유일신의 존재에 의문을 던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바로 회자정리이다. 지구의 소멸이 정해진 이치였다면 그 전까지의 삶을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배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에게 아름다운 회향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지만 능동성은 빼앗아간다. 보다 나아진 환경에서 진화한 신인류 아이들을 윤희의 고리를 끊고 지금까지의 업을 소멸시키는 존재로 내세우면서.

우리는 지구가 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지만 인류의 시선 밖에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세상 역시 모두 성주괴공 연기법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 상상 속의 SF드라마이지만 부처님이 설명하신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수작이다. 지구보다 더 큰 세상, 무량겁의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세상이 있다하더라도 연이 닿으면 생기고, 연이 다하면 소멸하는 이치. 차일드후즈엔드는 중중무중 인드라마 세상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이치를 SF로 포장해 들려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인연의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강지연 구성작가



▲ 폭발하는 지구

관세음보살 예찬문

관세음보살은 항상 아미타의 모습과 닮았지만, 중생을 괴롭히는 악마를 무찌르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보살이다. 이 찬문은 관세음보살의 신묘한 공덕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생물이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란다.

화령 편역

불교총지중 법장원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년 이상)

☎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사로 무량백덕 받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본 헤이켄지 (平間寺, 평간사) 대회



호마대법회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본 헤이켄지(平間寺, 평간사)대회의 세계평화기원대법회와 학술세미나를 모두 마친 대표단은 대본당(大本堂)으로 자리를 옮겨 밀교 전통 수법인 호마법회에 동참했다.

헤이켄지(平間寺, 평간사) 간수 후지타 류쥬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호마법회는 양국의 발전과 재난소멸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했다.

호마법회는 밀교의 정통 수법으로 법단 아래에 방형(方形)의 화단(火壇)을 만들고 공양물과 호마목을 태우며 진언을 염송하는 의식이다. 총지중에서는 공양물을 태우는 외호마 보다는 관법으로 하는 내호마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다.



학술세미나 및 공동선언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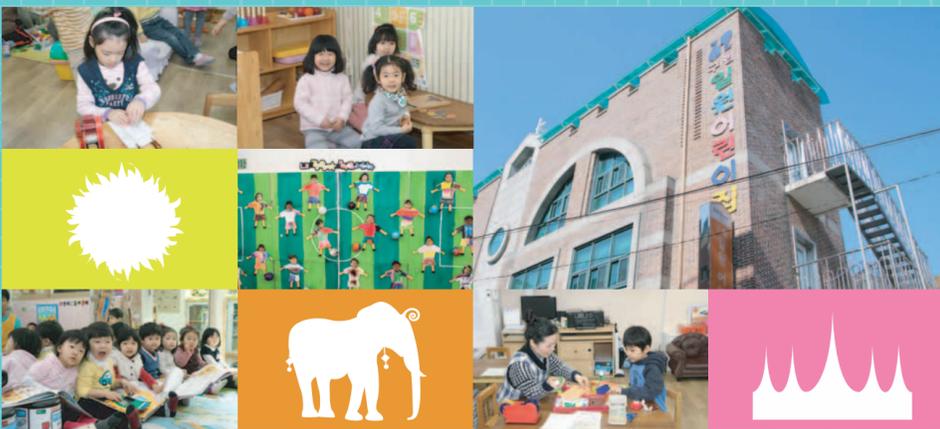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 평간사 대회 학술 세미나가 6월 17일 오후 1시 평간사 신도회관 3층 대강당에서 '불교신앙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성문 스님은 축사에서 "여러 차례의 아픈 과거사를 갖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양국의 불자들이 같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혜와 자비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한 공동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층 더 성숙하고 희망적인 양국의 미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한일 불교 지도자들이 상상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 양국은 여러 차례 격동의 역사가 있었지만, 천 년 전에는 찬란한 문화교류와 불교전래로 맺어진 절친한 도반이었음을 양국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며 오랜 친구로 맺어진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고야산 혜광원(惠光院) 주지 콘도 다이젠(近藤大玄) 스님은 '슈쿠보(템플스테이)의 수행체험에 의한 포교(阿字「 체험을 중심으로)를, 류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한국불교신앙과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의 질의 응답이 끝난후 양국 사무총장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발표하였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 현령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가와사키 니코호텔 공식만찬

헤이켄지(平間寺, 평간사)대회를 마친 양국 대표단 200여명은 17일 오후 6시 가와사키시 니코 호텔 대연회장으로 이동 공식만찬에 들어갔다.

먼저 니시요카 료코(西效良光)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이사장 스님은 “올해 4월에 日本 큐슈(九州)쿠마모토(熊本)地方에서 發生한 大地震으로 인하여 큰 災害를 입어, 지금까지도 復舊에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때 韓國의 韓日佛敎文化交流協議會 여러분과 各宗團 분들께서 慰勞의 말씀을 전해주시신 것에 대해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저희 또한 이 災害에 當面하여 最善을 다해 復舊活動을 支援할 생각입니다.”라고 구마모토 대지진에 서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한국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이사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우리들은 30여년의 유대 관계를 지속해오는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진언종 대본산 평간사에서 ‘불교신앙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화제로 삼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템플

스테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일본대회를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불교문화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불사를 모색한 의미있는 대회였다고 자부합니다.”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부회장 인구스님(보문종 총무원장)의 축사와 건배사에 이어 일본 전통 마츠리 북 공연으로 대회의 정점을 찍었다.



주요사원 참배

한국 대표단은 16일 오후 766년 창건된 일본 천태종의 3대 본산 중의 하나인 도치기(栃木)현 닛코(日光)시 린노지(輪王寺)를 참배했다. 대표단은 린노지 법당에서 한국불교 의식으로 약식 예불을 올린 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린노지 삼불당을 둘러봤다. 이어 린노지 85대 문주인 코구레 도주 스님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코구레 도주(小暮道樹) 스님은 한국 대표단에게 “한국에서 대단한 분들이 (린노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정 마지막 날 오전에는 도쿄 최대의 사원 아사쿠사 센소지(淺草寺)를 참배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도쿄=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 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9)

금강계만다라의 일인회(一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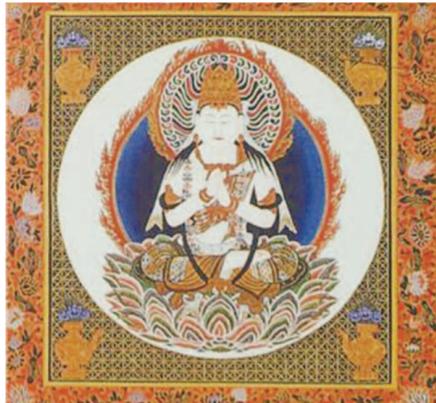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일인회 (흰색 네모)

금강계만다라의 일인회(一印會)는 그림1)과 같이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의 맨 위쪽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던 미세회의 오른쪽이다. 일인(一印)은 비로자나부처님을 가리킨다. 비로자나불 외에 어떤 불보살이 되었든간에 일존(一尊)을 모신 경우에 모두 일인(一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제불보살(諸佛菩薩) 가운데 일존(一尊)을 선택하여 그 본존(本尊)의 형상(形像)이나 불화(佛畵)로써 조성한 것을 일인(一印)이라고 한다.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에서 일존(一尊)으로 된 만다라는 일인회(一印會)다. 그 일존(一尊)의 일인회(一印會)를 대만다라(大曼荼羅), 혹은 대인(大印)이라 부른다. 대만다라는 만다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하거나 제불보살과 일존(一尊)을 존상(尊像)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일인회(一印會)를 대만다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제불보살(諸佛菩薩)을 총섭하는 일인(一印)이 존상(尊像)으로 표현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인회(一印會)의 일인은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일체의 제존(諸尊)을 모두 총섭하고 있으므로 대비로자나불이며, 대인(大印)이다.

이 일인회(一印會)는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사중만다라(四種曼荼羅)의 사인회(四印會) 뿐만 아니라 37존의 모든 불보살을 총섭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인회를 대만다라(大曼荼羅)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일인(一印)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것을 총섭한다. 일인(一印)은 한 분의 부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7존의 제존(諸尊)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일인회에서 37존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일인회를 대만다라라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성신회(成身會)라 할 수 있다. 금강계만다라 전체를 의미한다. 즉 일인회를 벗어나는 사중만다라의 사인회가 되고, 37존으로 확장하면 대만다라의 성신회(成身會)를 벗어나 줄이면 사인회(四印會), 하



▲ 그림2) 일인회의 비로자나불

나로 줄이면 일인회(一印會)가 되는 것이다. 즉 일인과 사인, 성신회는 모두 같은 대만다라이며 존상(尊像)의 수만 다를 뿐이다.

이 일인(一印)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비로자나불의 존형(尊形) 그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의 인상(印相)인 지권인(智拳印)이나 삼매야행인 보탑(寶塔) 등으로도 표현된다.

이 가운데 지권인은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인상(印相)이다. 대장계만다라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인상(印相)이 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정에 드는 결인이다.

지권인은 금강계의 비로자나불이 맺고 있는 결인(結印)으로, 그림2)와 같이 양손을 금강권으로 하고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세우고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쥐고 있는 인상(印相)이다. 오른손을 위로 두고, 왼손을 아래로 둔다. 이는 인도인의 전통적인 사고(思考)에 바탕을 둔 것으로, 왼손은 부정(不淨)의 의미, 오른손은 청정(淸淨)하고 바르다[正]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이가 불교에서 왼손은 중생의 세계, 오른손은 불(佛)의 세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왼손의 금강권은 중생의 생명을 상징하며, 오른손의 금강권은 절대자인 법신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양손의 결합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성숙

(聖俗)의 합일(合一)을 의미한다. 즉 중생이 불(佛)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권인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깨달음과 미혹이 일체라는 것을 나타내며, 중생이 무명(無明)을 없애고 지혜를 증득하여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식득지(轉識得智)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일인은 지권인 외에 삼매야행으로도 표현되는데, 바로 보탑(寶塔)이다. 보탑은 금강계만다라의 삼매야행이다. 태장계만다라의 경우는 오륜탑(五輪塔)이다.

보탑(寶塔)은 그림3)과 같이 연꽃 위에 옆으로 눕혀 놓은 오고저(五鈎柱)의 위에 올려져 있는 삼매야행이다. 보탑은 보리심을 상징하는데, 이를 풀어 설명하면, 깨달음[연꽃]을 얻기 위하여 굳건한 정진 수행[오고저]을 행함으로써 구경에는 보리심[보탑]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다, 성불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일인(一印)은 비로자나불의 존형(尊形)과 지권인(智拳印), 보탑(寶塔)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실제 경전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금강살타로 묘사되고 있다. 『금강정경』에서 일인(一印)을 금강살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인(一印)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왜 금강살타를 내세우고 있는가?



▲ 그림3) 보탑

금강살타와 비로자나불은 사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금강살타가 곧 비로자나불이며, 비로자나불이 금강살타이다. 금강살타와 비로자나불은 동일시되고 있다. 그 내용은 금강정경 계통의 경전인 『진실설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경전에 '대사(大士)의 몸인 금강살타가 바로 여래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사(大士)는 비로자나불을 가리키며, 금강살타는 곧 비로자나불을 의미한다. 경전에서 '금강살타가 대사'이고 '금강살타가 여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살타가 곧 비로자나불이 되는 것이다. '대사=금강살타=여래'라는 등식과 함께 모두가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다. 일존(一尊)과 제불보살(諸佛菩薩)의 상입상즉(相入相即)과 다즉일(多即一) 일즉다(一即多)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경전에서는 '티끌처럼 수많은 제불(諸佛)은 모두 금강살타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금강살타에서 제불(諸佛)이 출생한다는 말로서 보살을 불(佛)의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불보살, 명왕 등의 순차와 순위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보살을 불(佛)의 상위에 올려 놓는 사고는 금강살타가 곧 비로자나불이라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공능(功能)에 있어서 둘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금강살타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뜻

이다.

이와 같은 배치는 준제보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준제보살을 불(佛) 보다 상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준제보살을 온전히 갖추어 부르면, '칠구지불모준제보살'이다. 준제보살이 칠구지불의 어머니라는 의미이다. 어찌하여 준제보살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 하는가? 이는 청정한 준제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된다는 말로서 곧 '청정'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정의 측면에서 준제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지혜의 증득이라는 측면에서 금강살타가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존재로서 상위(上位)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살타가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살타를 내세운 것은 제불(諸佛)의 지혜가 금강살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살타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혜의 보살인 금강살타가 모든 부처님의 출생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금강살타보살이며, 실제로 『진실설경』에서도 제불(諸佛)의 지혜를 생장케 하는 주체로서 금강살타가 묘사되고 있다.

『금강정경』 계통의 경전에 나타나는 주된 가르침은 지혜의 증득인데, 이러한 지혜의 증득은 곧 금강살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금강살타를 대치(代置)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금강살타가 지혜를 발동시키고 생장시키기 위한 주체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인으로 등장한 금강살타는 곧 수행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비로자나불은 수행의 결과로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언행자가 스스로 금강살타라 자각하고 지혜를 생장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금강살타와 상응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 상응하는 법이 바로 삼밀수행이다.

<다음호에서 '이취회'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역음 : 법경 종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불교총지중 / 인쇄 : 동림기획
 면수 : 250쪽 / 법보시 가격 :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02)552-1080~3

< 서 원 사 항 >

- | | |
|------------------------|-----------------------|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
| 2. 사업 원만 발원 | 10. 참회 발원 |
| 3. 취업 원만 발원 |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
| 4. 건강 원만 발원 |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
|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
| 6. 학업 및 수능 시험 원만 발원 | 14. 지혜 총명 발원 |
| 7. 업장 소멸 발원 |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
|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

대한불교법화종 창종70주년 기념 대법회

통영 안정사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 동참



▲ 세계평화비를 둘러보는 도용스님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도성 스님)은 6월 14일 경남 통영 안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창종 70주년 기념 및 안정사 영산괘불 친견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은 영남 범음범패 도량으로 알려진 안정사의 보물 1692호 안정사 영산괘불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성파 스님, 총무원장 도성 스님 등 법화종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과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들도 동참했다. 법회는 깨불 이운, 타종, 여래수량품 자아계 독송, 법화 종요 낭독, 종단 연혁 보고, 법어, 봉행사, 축사, 종정 표창 및 공로패 전달, 발원문, '관세음보살보문품 100만 독송 릴레이' 전달 및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화종 종정 성파 스님은 기념 법어에서 "그동안 법화종은 분쟁과 시련의 시간이 길었다. 이제 모든 아픔을 훌훌 털

고 종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라며 "종도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을 치유하고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성 스님은 봉행사에서 "법화종은 역대 조사와 고승 대덕 스님들의 구종 일념을 바탕으로 법화 사상을 널리 유포해 온 종단"이라며 "크고 작은 분쟁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던 일그러진 자화상은 지워버리고 모두 한마음 한뜻의 애중심으로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축사에서 "법화종은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도들의 단합된 힘으로 법화종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서원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창종 70주년 기념으로 지난 4월 서울에서 입제식을 가진 100만 독 수행결사는 전국 각 중무원에서 릴레이로 선언식을 이어가며 1년 동안 10만 독, 10년 동안 100만 독을 성취하는 수행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동국대 이사장에 자광스님 선출

“학교법인 운영에 최선 다할 것”



조계종 균종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한 자광스님(반야선원 주지)이 제39대 동국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성타스님)는 20일(월) 오전 10시 동국대입산병원에서 개최된 제304회 이사회에서 자광스님이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이다.

자광스님은 경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화엄사, 해인사, 건봉사, 상원사 등에서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1963년에는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중비생(조계종단장학승) 1기로 졸업했으며, 1977년에는 계율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1970년 균승중위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군인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에 힘써왔다.

신임 이사장 자광스님은 "조계종 중비생 1기 출신으로 평소 애정이 많았던 동국대의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법인 이사단과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학교법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불련총동문회, 2016년(제14회) 전국동문대회

열어온 50년 · 열어갈 50년, '대불련 지리산을 품다' 주제로 개최

8월13일(토)~8월14일(일)...지리산 블루션 리조트, 화엄사, 지리산 일원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훈) 2016년 제14회 전국 동문대회가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 대불련 지리산을 품다' 주제로 8월 13일~8월 14일 지리산 블루션 리조트, 화엄사, 지리산 일원에서 전남지부(지부장 최정훈) 주최로 개최된다.

제14회 전국 동문대회는 대불련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열어온 5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행사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소통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8월 13일(토) 12:00(등록)-8월 14일(일) 14:00(회향식) 이틀간 열리는 이번 동문대회는 500여 명(70학번 이후의 동문/배우자 400명, 69학번까지의 선배 50명, 동문 자녀 30명, 재학생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일차에 화엄사에 집결해, 등록, 입제식, 주제법문, 토크 콘서트, 문화

공연, 어울림 한마당을 펼친다.

2일차는 지리산 트레킹, 회향식(천은사)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5만 원이며, 69학번까지 선배 및 동문 동반 자리는 회비 면제이다. 또 대불련 재학생은 2만 원이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8월 13일 12:00 화엄사 각황전에서 참가등록/회비납부/기념품 배부가 이뤄지며, 커피, 차, 떡 등을 제공한다.

입제식은 오도선(88) 동문의 사회와 자황스님 집전(법구)으로 13:00~14:00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입제식은 개막영상, 대회기 입장, 삼귀의례, 반야심경, 삼대강령 제창, 공로패/자랑스러운 대불련인상/감사패 수여, 대회사(백효훈 회장), 환영사(전남지부장), 축사, 자비의 쌀 전달, 대불련가, 사홍서원, 백효훈 회장 대회사, 환영사, 화엄사 주지스님축사, 구례군수

축사, 자비의 쌀 전달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법문은 용타스님(행복마을 이사장)에게 들으며, 구충암(화엄사대웅전에서 300m)등 사찰 관람시간에는 화엄사 문화해설사에게 들으며 각 직장을 참배한다.

이후 숙소인 블루션리조트로 이동해 토크 쇼와 야외무대에서 '지리산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상 및 시 낭송은 지리산 시인 박남준 씨가 맡으며, 이야기 손님은 조경래(소설가), 법인스님(일지암)이 나선다. 노래와 연주는 박양희(가수), 한태주(지리산 유희리 소년)씨가 출연한다.

저녁공연 후에는 문화공연이 야외무대에서 국악공연으로 열린다.

곧이어 진행되는 어울림 한마당은 참석자 인사/지부 소개 및 장기자랑/이벤트 시상 등으로 개최된다.

다음날 아침에는 지리산 성삼재로 이동해 노고단까지 트레킹을 진행한다.

노고단에서 산정 이벤트가 열리고, 대불련 활성화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이후 천은사로 이동해 참배 및 관람하고, 천은사 대웅전 앞에서 폐회식을 갖는다.

한편 어린이/학생 프로그램(1조 : 유치원~초등 3, 2조 : 초등 4~중등 3)은 합장과 절/참선/찬불가배우기/간식 및 자기소개, 법문, 화엄사 사찰 관람, 어울림 한마당 합창 공연, 치즈랜드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에 불법을 전하러 가시는 부처님”

6월 8일~15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점안식 개최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6월 8일부터 15일(8일간)까지 한국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1층 로비에서 '보리가람 농업 기술 고등학교'의 개교에 앞서, 학교에 모셔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전시회 개막식은 6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렸고, 부처님 점안식은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진행됐다.

점안식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

리가람 농업기술 고등학교'에 모셔질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부처님·탄생불 및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육사리 1과·발사리 1과)가 진신된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 학교 건립 스토리 사진전이 함께 개최됐다.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부처님과 함께 전시가 될 진신 사리는 고구려 인으로 중국에서 불법을 배워와 당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최초의 스님, 아도화상이 중국의 최초 사찰인 백마사에서 모셔 오셔서, 다시 신라 최초 사찰인 백련사지 석탑에 모셔지게 된

사리의 분과사리 3과이다.

이번에 진신된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부처님은 광제사 주지 경원스님이 기증한 것으로, 현재 여진불교교각원 연구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 조각장을 이수한 이재운 작가가 제작한 작품이다.

기증자 경원스님은 지난해 4월, 인사동에서 진행된 불상 전시회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과 인연을 맺고, 아프리카에 심어진 배움의 씨앗이 싹 틔우는 곳에 부처님이 함께한다면, 그보다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 같으며 '보리가람 농업기술 고등학교'에 비로자나불·석가모니불 부처님·탄생불과 진신사리 3과를 기증했다. 경원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신 부처님의 불심이 더 큰 세상을 비추어 탄자니아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전시회에 방문한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겨 잘 전해지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법정 지음

六字儀軌

법경 대정사 지음 /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 '육자의귀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해인사대적광전(海印寺大寂光殿)
 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시대: 조선시대



▲ 수타사 대적광전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는 통일신라 애장왕 3년(802)에 지어졌다. 중심 법당인 대적광전은 2층 건물로 비로전이라 불리다가, 조선 성종 19년(1488)에 다시 지으면서 대적광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화재가 있어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지금의 건물은 순조 17년(1817)에 다시 지은

것을 1971년 대폭 수리한 것이다. 앞면 5칸·옆면 4칸 규모로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내부에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85화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올바른 훈장

못된 훈장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377p-9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6. 보극수(寶戟手) 진언



음 삼매야 기니하리 흙 바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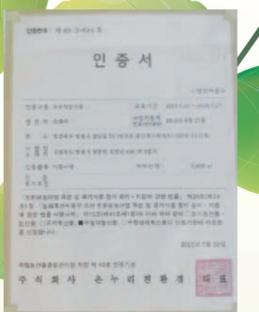
만약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역적을 물리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2,000원
무료배송

7월 25일부터 출하!!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 시력개선 효과 ● 면역력, 기억력 강화 ●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사원 054-333-0526, 지현 010-5531-7950
 불교총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고야산 혜광원 (高野山惠光院)

주지, 전수학원장사 콘도 다이켄(近藤大玄) 스님

「佛敎信仰의 多樣性」

-슈쿠보(템플스테이)의 수행체험에 의한 포교-

(阿字 : 체험을 중심으로)



코우야산에서 슈쿠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 각지의 사찰 단위로 오는 단체 참배나 동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불교 경전 강의의 단체 방문객(특히 코우보대사 강의),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분도 관광보다는 참배하러 오는 분이 많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코우보대사의 신자분이었습니다.

코우야산은 메이지시대가 될 때까지는 여인금제라 하여 여성의 입산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행하는 곳인 신베츠쇼(眞別所)만이 여인금제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슈쿠보는 숙박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예약이 없어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듯합니다. 또한 아리마 온천처럼 대규모 숙박시설이 되거나 완전히 료칸이 되어 이름에만 승방으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코우야산의 슈쿠보는 참배자를 위한 숙박장소이기 때문에 식사는 사찰음식이 나옵니다. 사찰음식입니다만, 수행자용의 일일급식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밥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지는 비교적 진수성찬의 느낌입니다.

이는 '후레마에 상차림(밀교의 의식용 상차림)'이라고 하여 축하할 일 등이 있을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요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이면서 숙박이 가능한 슈쿠보에서는 아침 예불이나 좌선 등에 참가하여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숙박하는 분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종교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절에서도 아침 예불, 법문, 호마(護摩), 사경, 아자관(阿字觀) 같은 종교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호마와 아자관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참가하여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 스님 아자관 순서
- 1. 삼례
- 2. 조신, 조식(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 가지런히 한다)
- 3. 삼밀관(三密觀)생각하라, 손 안에, 혀 위에, 마음 속에, 각 할자(轉字)가 있고, 변하여 오고금강저가 되다.신구의의 번뇌부정을 단정하여 삼부의 제존을 현득하다.몸에 3번, 입에 4번, 마음에 3번 훔(昨)자를 각 한 번을 읊는다.
- 4. 정삼업 삼부(불부, 연화부, 금강부) 호신법
- 5. 오대원衆 生無(誓願度) 福智無(誓願集法門無(誓願) 如(無(誓願)事菩提無(誓願)請
- 6. 염송(대일여래진언)아비라운켄 100번
- 7. 본존관
- 8. 삼부 호신법
- 9. 절, 삼례를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반인아자관 순서
- 1. 입당
- 2. 설명(아자관의 개념과 앉는 방법, 주의 사항 등)
- 3. 조신
- 4. 조식
- 5. 수식관 또는 아식관(호흡을 통해 수행법)
- 6. 절의
- 7. 퇴당

아자관 실천 수행

- 앉는 방법
- 우선, 앉는 방법은 자세를 바로 하고 요하고 편안하게 앉도록 합니다.
- 다리는 접는 방법에 따라 평좌, 반가좌, 결가부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가부좌나 반가좌가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좌도 상관 없습니다.
- 평좌관, 저희 일본인이 일상에서 자주 앉는 자세로 평좌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양 무릎을 뒤로 접어 양발의 엄지발가락을 살짝 겹치도록 하고 엉덩이를 양발꿈치 사이에 놓고 무릎과 무릎 사이를 10센티 정도 벌려서 앉는 방법입니다.
- 다음으로 두 눈은 약간 가늘게 떠서 코끝을 향해 모으고 시선은 전방 9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정도의 곳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결코 응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히 시선을 두는 것뿐입니다. '눈은 입만큼 말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눈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되면 졸리게 되니 반드시 떠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가짐
앉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잡념이 완전히 없어진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됨으로써 아집의 때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일체의 잡념으로부터 벗어나 순진무구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떠한 구애됨 없는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신과 부처님에게로 통하는 마음이고 또한 어떠한 것과도 융화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없는 그릇 같은 것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이러한

○수식관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나면 혀는 위턱(잇니)에 붙이고 위아래 입술과 치아는 가볍게 다룹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이-', 내쉬면서 '차-'라고 하며 호흡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10까지 세고 나면 다시 1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일어나고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앉아 있으면 서서히 고요한 마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아식관
다음은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나서 '아'를 생각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릴 때 희미한 소리로 '아아'라고 읊습니다. 그 읊는 '아'의 소리가 대일여래를 느끼면서 들이쉬는 숨에도 대일여래를 생각합니다. 내쉬는 숨, 마시는 숨이 그 자체로 '아'의 소리와 하나로 어우러져 완전히 '아'자를 소리내어 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딘가 잡념이 있다는 것조차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 넉넉하게 마음을 가짐으로써 잡념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것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마음은 잡념에 빠져서 잡념의 크기가 되어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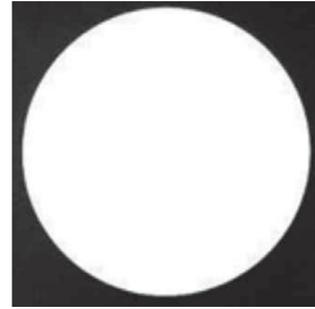
○호흡법
우선 입을 다물고 공기 중의 부처님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숨을 고요하게 천천히 들이쉬고 그것이 전신에 퍼지도록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후, 살짝 입을 벌리고 자신의 심신속의 때를 내뱉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숨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번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것도 수식관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함으로써 능숙해집니다.

이처럼 실제 체험에서는 초심자에게 갑자기 아자관 명상을 하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식관이나 수식관이라는 호흡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명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가지런히 함으로써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여기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륜관, 아자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월륜관
월륜관은 아자관 명상을 하기 전에 만월을 나타내는 본존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코끝 정면에 원명의 월륜을 생각합니다. 그때 눈은 반쯤 뜬 채로 떠올리는 것



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을 살짝 감고 떠올리고, 다시 눈을 뜨고 떠올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앞에 월륜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마음과 서로 융합해서 일체가 된 불이(不二)의 월륜을 떠올립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있는 월륜이 점점 커져가고 마침내 이것을十方無邊(十方無邊)의 천

의 심월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눈을 뜨고 코끝의 정면에 본존의 월륜을 떠올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 월륜을 떠올리는 것을 한 동안 계속하여, 이것에 숙달된 후에 심월의 확대나 축소를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련월(阿蓮月)을 떠올리다
아주 동그란 맑고 밝은 심월 속에서 하얗고 깨끗한 8엽 연꽃이 피어있고 그 꽃위에 범어의 종자(자모인) '아(阿)'자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자관'의 본존'입니다. 이 본존님의 아련월과 자신의 마음의 아련월과 중생의 아련월이 일체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까지 퍼져나가도록 생각합니다. 이때 평온한 광명 외에는 달의 둥근 형태도 없고, 염원하는 마음도 없고, 달과 마음과 우주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오직 완전한 밝은 세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무념 무상의 마음에 한 동안 안주해서 월륜삼매의 법열을 마음속 깊이 체험한 후에, 전 우주에 펼쳐진 심월을 차츰 작아지게 하고 다시금 원래의 크기로 줄여서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은 뒤 월륜을 잊고 자신을 잊고 잠시 동안 무심의 정좌를 계속한 뒤에 출정(선정에서 빠져나옴)합니다. 초심자는 이 월륜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의 좌선에 전부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코끝의 정면에 본존의 월륜을 떠올리는 것만을 매번 연습하고 눈을 감아도 자연스럽게 월륜이 선명하게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된 후에 마음속

마지막으로 전 우주로 퍼진 아련월을 점차 축소시켜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담습니다. 그때 몸도 마음도 잊고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시 동안 정좌한 뒤 서서히 선정의 세계로부터 나와 한 번의 아자관 명상을 마칩니다.

하와이 무량사 템플스테이

하와이무량사 템플스테이 **수시** 접수중 (1개월 이전 신청요망)
하와이무량사 신도 3개월 안거 입방비 1000불(100만원)

"지상낙원 하와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8박 9일 템플스테이 비용 \$1,000불과 인천-하와이 항공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템플스테이 비용 \$1,000불에는 숙식비, 관광비,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회 정원은 13~14명이며 매주 수요일에 출발합니다.

항공료는 항공사와 비수기, 성수기(7~8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2016년 3월 할인항공권으로 하와이안 항공은 1,100,000원, 아시아나 항공은 1,200,000원, 진에어 600,000원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조실 진불장혜성 주지도현**



참된 나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찾는 여행



모집기간

2016년 5월 2일 ~ 7월 10일까지

대상

- 초(4학년이상), 중, 고등학생
- 팀(5~8명)으로 참가

여행내용

- 01 | 5~8명이 한팀이 되어 1박2일간 함께 떠나는 여행
- 02 | 팀도 자유롭게 장소도 내맘대로
- 03 | 참가자 1인당 8만원 지급
- 04 | 멘토(성인) 1명 동반 필수
- 05 | 여행참가자 한마음캠프 참여 가능

한마음캠프

- 일시 2016. 7. 25 ~ 7. 27(2박3일)
- 장소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 여행 후기도 나누고 문화체험도 즐기고

참가방법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 문의
T. 02-552-1080~3
E-mail. kongjub@naver.com